

새로 나온 詩集

하얀 지동

魯珍善 지음

「물레방아」「고향하늘」「푸른 물빛 빛는 삶」 등의 시집을 통해 풋풋한 서정의 세계와 깨끗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던 시인의 네번째 시집.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응시와 일상적 사물의 내면세계를 바라보는 시인의 독특한 시선이 돋보인다.

교원문학사 / A5 / 172면 / 2500원

그리운 종소리

유안진 지음

「달하」「달빛에 젖은 노래」「영원한 느낌표」 등의 시집을 통해 삶에 대한 아픈 성찰을 보여주었던 시인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쓴 시들을 모았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으면서도 동양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며, 시조의 율격을 적절히 이용하여 동서양 문화의 적절한 융화를 보여준다. '민음의 시선' 시리즈 25번째 작품집.

종로서적 / B6신 / 118면 / 2000원

내 사랑은 해지는 영토에

이기철 지음

72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 「날말추적」「청산행」「전쟁과 평화」「우수의 이불을 덮고」 등의 시집을 펴낸 시인의 신작시집. 편지투의 이야기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수와 슬픔이 담겨 있지만 친근하게 대화하는 듯한 독특한 語法을 구사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최동호는 후기를 통해 "형이상학적 관념이나 서정적 슬픔의 세계를 노래하던 그의 시는 이번 시집에 이르러 좌절을 딛고 일어서 희망

과 확신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학과비평사 / B6신 / 88면 / 2000원

서울지옥

장용철 지음

8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문을 바르며」가 당선, 등단한 시인의 처녀시집. 우리 시대의 인간과 사회와 자연 모두가 병들어 있는 삶이라고 진단한 시인은, 일반적인 시들이 지니고 있는 문어체적인 우아함이나 다의적인 함축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수사적 장치 없이 이야기하듯이 드러내고 있다.

명상 / B6신 / 122면 / 2000원

바늘구멍 앞의 낙타

원희석 지음

첫시집 「물이 옷 벗는 소리」를 통해 산문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던 시인의 두번째 시집. 첫시집과 마찬가지로 모두 산문시로 이뤄졌는데, 마침표가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의 문체는 읽는 이를 숨가쁘게 만들지만, 때로 절박한 울림을 전해준다.

고려원 / B6신 / 110면 / 2000원

네 살던 날의 흔적

李榮春 지음

「종점에서」「시지포스의 돌」「귀 하나만 열어놓고」 등의 시집을 펴냈던 시인의 신작시집. 주로 사라져가고 있는 '순수함'에 대한 열망이 나타나 있다. 특히 「대지의 노래」「네

살던 날의 흔적」 연작은 각각, 어려운 시대를 살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생애와 민주화운동에 목숨을 바친 아우의 이야기를 통해 순수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상징을 선보인다.

文學世界社 / B6신 / 120면 / 2000원

M₁₆에 관한 명상

유재기 지음

87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 「無等天下」「살아가기」「세상일기」 등의 시집을 펴냈던 시인의 신작시집. 「M₁₆에 관한 명상」 연작 외에 47편의 시를 모았다. 귀족적인 賣名행위나 제도적인 폭력을 완강히 거부,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조망하려는 따뜻한 휴머니티와 자기성찰이 엿보인다.

흙 / B6신 / 110면 / 2500원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고운기 외 지음

8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젊은 시인들의 모임 '시힘' '시운동' 동인의 합동신작시집. '시힘'의 고운기·고형렬·김경미·김백겸·박철·안도현·정일근·최영철·황학주, '시운동'의 권대웅·김정관·박주택·원재훈·이문재·장정일·정한용·정화진·하재봉·황인숙 등의 시를 함께 실어 두 동인의 시세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힘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 고운기의 글과 시운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소개·비판한 남진우의 해설도 관심을 모은다.

文音社 / B6신 / 158면 / 2500원

누가 두꺼비집을 내려놨나

장경린 지음

85년 「문예중앙」 신인상을 수상,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은데, 그 역사적 사실을 멀리서 입체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기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金柱演은 해설을 통해, 역사를 마치 하나의 사물처럼 바라봄으로써 삶의 실체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음社 / B6신 / 118면 / 2000원

모든 길은 강으로 돌아오고

南北詩동인 지음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토대로 하고, 나아가 세계화해를 구가하는 시세계를 추구하는 모임 '南北詩' 동인의 시집. 대부분의 시들이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중국동포시인 김철·김성휘의 시도 함께 실려 관심을 끈다.

靑鶴 / B6신 / 204면 / 2500원

흰옷 입은 사람아

김성휘 지음

중국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소박한 가락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정서를 표현한 서정시 57편을 모았다. 시인은 사회주의 체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원초적인 정서나 悟性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正音文化社 / B6신 / 158면 / 2000원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제작

서울 · 중구 충무로 4가 132-5호

279 · 1323

네모

출판 미술 전문

교과서, 참고서 컷·삽화
아동 삽화물·카다로그
표지 디자인·팜플렛

☎ 313-4723 이 상 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1-1

★ 남아현 상가 216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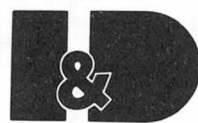


Illustration and Design

- 표지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로고/심볼제작
- 광고기획제작

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중구 자동2가 48-20

경구빌딩 601호

Phone/277-8721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개당 제작실비 2,0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3,5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